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3월 22일 주일 설교입니다.

<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마가복음 9:21~24 / 새찬송가 280장 (통일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1. 사랑이 제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영성’도 갖고 있습니다. 영성은 우리에게 섬세한 분별력을 줍니다. 섬세한 분별력은 좋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내고 악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것을 골라내는 능력입니다.

사도바울은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사들 보다 더 좋은 은사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사랑을 말했습니다(고전12:28-31). 실로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입니다(고전13:13). 사랑이 왜 믿음보다 좋을까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마치 영혼의 무게와 같습니다. 영혼은 사랑하는 것에 기울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이 하나님께 기울어져서 달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2. 사랑의 출발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랑의 출발과 원동력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려면 먼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시 103:13,14),(엡2:4,5),(시117:1,2).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죄의 결과로 인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으며 둘 다 에덴에서 추방되어 그들의 근원인 땅을 갈면서 먹고 살게 되었고 영생을 위한 생명나무 과실을 따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염검과 그릅들을 두어 지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창3:21).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희생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상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징

별밖에 받을 것이 없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히4:15,16).

3. 우리가 주님께 우선 간구해야 할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 즉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 이전에 귀신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마가복음9:21-23). 그래야 비로소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굳세어질까만 생각하는데 사실 제일 먼저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즉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긍휼히 여김 받는 자 즉 불쌍히 여김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시51:17). 그리고 세리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입니다(눅18:10-14).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미5:7).

< 적용 & 실천 >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할까? 어떻게 해야 잘 믿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